

신준근(강릉 MBC 경영국 광고사업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성장할 것이다



취재 중에 '2010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을 기획한 '강릉 MBC'의 신준근씨를 만났다. 그는 음악대향연이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10회, 50회, 100회 지속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Korea
Music Festival



2010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을 기획하게 된 계기?

강릉 MBC에 근무하면서 강원권에서 축제와 연계해 치러지는 공연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왔어요. 그러면서, '음악대향연'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케이블 방송에서 공연이 방송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속초시를 대표하는 음악공연이 케이블에서 방송되고 마는 것인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강릉 MBC가 해보자는 생각이 밀려들더라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설명회에 참여를 했고, 2009년도에는 이벤트 및 행사에 대한 실적이 부족해 아쉽게 물러났다가 올해 처음으로 강릉 MBC에서 진행하게 된 거죠. 제가 여러 공연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도 속초의 음악대향연은 더욱 성장하고 강원도를 외부(외국)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활성화시켜서 10주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행사로 발전시키고 싶어요.

행사 중에 비가 내렸는데, 장소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지?

음악대향연이 2004년도를 시작으로 올해 7회를 맞이했어요. 그동안의 공연들이 진행된 것을 분석해보니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초반에는 음악대향연이라는 말에 걸맞게 무대를 설악산, 속초시, 해수욕장 등에 설치하고, 동 시간대에 공연이 이뤄지기도 했었더라고요. 그 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공연장소가 여기 속초시 청초호 특설무대로 확정된 거죠. 비 때문에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청초호의 멋진 야경을 볼 수 없겠죠. 비가 내리는데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공연장으로 입장해 열정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에서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시민들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해볼 생각은 없는지?

공연문화가 누군가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체험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요. 지금까지는 메인무대에서는 뮤지션들의 음악공연을 해왔었고, 대기석 쪽의 보조무대에서는 관람객이 게임이나 노래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설치했어요. 메인무대를 크게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형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기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기획하려면 대형 공연 안에 또 다른 기획팀이 구성되어야 해요. 지역의 힙합팀, 락밴드, 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의 여러 팀들을 모아서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시간이나 여력이 모자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더욱 웅장한 대향연이 된다면 특별 기획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악대향연에 대한 속초시민들의 반응은?

첫날은 개막 공식행사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행사장을 모두 채웠어요. 비가 오는데도 공연장을 찾아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둘째 날의 '쇼! 음악중심'에는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 2천여명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공연장 내 좌석이 7천400석인데, 자리를 모두 채우고도 좌석 사이사이에서 보는 인원까지 인산인해였어요. 그만큼 속초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음악대향연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있어요. 앞으로도 음악대향연이 이런 속초시민들의 열정을 한가득 담아 더욱 멋지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음악대향연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한국을 대표하는 행사 중의 하나로 발전해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가까운 10주년을 발판으로 외국인인 한국의 관광코스로 찾는 속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악대향연이 속초시에서 열리지만 이 행사로 인해 강원도가 즐겁고, 강원도의 즐거움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가 즐거울 수 있는 행복한 공연문화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역마다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에 정부의 후원이 있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연계행사를 기획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공연들은 며칠씩 정체하면서 즐기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계행사로 관광객의 발목을 잡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기획해보고 싶은 것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사이에 아이돌부터 락밴드, 비보이팀을 접목해보기도 하고, 중장년층을 위해 트로트 가수들만 모아서도 공연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 것이 기획사별로 하루씩 공연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한 기획사에서 여러 팀의 가수들부터 연기자, 코미디언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아주 알차고도 재미있는 공연이 만들어 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의 아이들은 댄스가 강세인데 안무가와 함께하는 댄스배틀이나, 연습생을 깜짝 공개하는 등의 이벤트가 함께 이뤄진다면 너무나 즐거운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사별 공연을 기획해서 진행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네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대부분 지역의 방송사들이 겪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인력이 좀 풍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는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사람이 부족해 업무를 힘들 게 힘들 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인력적인 총원으로 공연에 기획력이 보강되고, 방송 노하우가 쌓이는 그런 방송제작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음악대향연을 함께 준비한 여러분에게 한마디?

‘2010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힘써주신 속초시 관계자 분들과 미디어텍, 서울의 쇼 음악중심 팀, 강릉 MBC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도 너무 많은 관계자들이 고생하셨습니다. 행사기간에 비가 계속 내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많은 노력으로 행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공연 준비한다고 얼굴도 한 번 제대로 못 보여줘서 너무나 미안하고, 일하는 모습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해줘서 정말로 고마워.